

시사초점 11

제1회 APEC 통신·정보산업 장관회의 개최

— APII 구축 통한 「태평양시대」 선언 —

— 편집위원회 —

가. 회의 개요

- 기 간 : '95. 5. 29(월)~30(화)
- 장 소 : 신라호텔
- 참석자 : APEC 회원국 및 민간관련기구에서 189명
 - 회의 의장 : 경상현 정보통신부 장관(한국 수석대표)
 - 주요 참석인사
 - 장관 : 일본 우정대신 등 9명
 - 차관 : 미국 상무차관 등 6명

나. 회의 서울개최의 의의

제1회 APEC(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협력체) 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가 이번 서울에서 개최된 것은 우리나라가 21세기 亞·太지역의 정보통신분야를 주도하기 위한 포석이란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亞·太지역의 정보통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미국과 일본에 맞서 우리나라가 첫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아·태정보통신기반구축에 있어 우리의 입장을 상당히 반영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이 전세계를 단일 네트워크로 구축하자고 제시한 「GII(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와 일본이 아시아권을 묶자는 「AII(Asia Information Infrastructure)」에 정면으로 맞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APII(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를 통과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미국과 일본이 GII나 AII를 주창해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방대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미국은 잠재적인 이들 상품을 전세계에 유통, 富를 축적할 채널이 필요하게 됐고 이를 전세계의 정보통신기반구축이라는 것으로 표출하게 됐다. 즉 어느 나라도 따라가지 못할 소프트웨어 및 DB라는 고급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전세계에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고속도로를 뚫어 이를 효과적으로 판매하자는 전략이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초고속정보통신망인 고속도로를 구축할때 필요한 통신장비시장을 노려보자는 속셈을 底意에 깔고 있다. 각국의 정보통신기반 구축에 있어 고도의 기술력을 앞세운 정보통신표준을 마련, 개발도상국에 자국에서 만든 고가의 통신장비를 아시아통신기반이란 명분으로 팔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아·태지역의 많은 국가들은 양국의 정보통신기반구축 제의에 대해 적지않은 고민을 해왔다. 이들의 주장대로 정보통신기반을 따라가지 않을 경우 통신·정보후진국으로 남아 있게 된다는 우려와 따를 경우 모든 정보와 기술, 표준등이 이들 선진국에 귀속돼 국익은 물론 나아가 문화적 침투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金泳三大통령이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APEC각료회담에서 아·태지역간 통신기반을 다지자는 APII를 제안, 서로 눈치만보던 미국과 일본의 경우 우리의 입장

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됐고, 특히 아·태지역의 개발도상국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됐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자본력 및 기술력을 앞세운 GII나 AII보다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한국이 제안한 APII가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기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APEC 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는 개발도상국들이 많은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가 통신망구축의 선두주자로 나서는가 하면 각국의 상충된 이해를 풀어나가는 주도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장한 APII는 아·태국가간 정보통신기반구축을 통해 회원국 경제체제들이 시간적·공간적 장애를 해소시켜 「새로운 태평양시대」를 개막하고자 하는데 있다.

다. 주요 행사

- 장관회의 개최식(5. 29, 10:00 다이내스티 홀)
 - － 대통령 환영인사 말씀
 - 대표단 포함 국내외 정보통신 관련인사 500여명 참석
- 국무총리 주최 환영오찬(5. 30, 12:00)
 - － 대표단 및 국내외 정보통신 관련인사 350여명 참석
- 「APII를 위한 서울선언문」 및 「장관 공동발표문」의 채택 후 폐회(5. 30, 15:30)
- 공동 기자회견(5. 30, 16:30)
 - － 내외신 기자 40여명 참석

라. 주요 회의 결과

- 「APII를 위한 서울선언문」의 채택
 - － APII 5대 목표
 - 상호접속되고 연동 가능한 역내 통신기반구조의 건설과 확대
 - 정보통신기반구조 개발을 위한 회원경제체간 기술협력의 장려

- 정보의 자유롭고 효율적인 유통 촉진
- 인력자원의 교환과 개발의 추진
- APII 발전에 부합되는 정책 및 규제환경의 창출
 - － APII 10대 핵심원칙 합의
 -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 해소, 문화/언어적 다양성의 촉진 등 APII추진을 위한 10가지 협력원칙 채택
- 「장관회의 공동발표문」 채택
 - － APII 목표 실현을 위해 협력분야를 확인하고 구체적 실천계획 추진에 관한 회원국 장관들의 의지 천명
 - － 5대 협력 분야
 - 기술, 통신망, 내용/정보 및 응용,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 및 규제
- 제2회 장관회의 개최국 결정
 - － 호주의 제2회 장관회의 주최 제의 채택

마. 평 가

- 본 장관회의는 지난 '94년 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시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회의로서, 역내 무역과 투자 증진 및 APEC이 경제 공동체로서 발전해 나가기 위한 핵심 사회자본인 역내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회원국간 협력을 제창하신 대통령의 의지를 구현한 회의였음
- 우리나라가 APEC 지역 최초의 통신·정보산업장관회의를 주최함으로써, 아국의 역량을 과시했을 뿐만 아니라 아·태 지역에서의 국위 제고 및 정보통신분야 협력증진의 계기가 되었음
- 우리나라가 제시한 APII 구상을 본격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회의로서, 앞으로 아·태지역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협력에 있어 아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기대됨
- 아국에 이어 호주가 차기회의를 주최하게 됨으로서, 장관회의가 아·태 지역 정보통신 분

야 최고 협력기구로 정착됨에 따라, 기존 선진국 민간부문 주도의 일방적인 정보화 추진

압력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정보통신분야 협력 기반이 조성됨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 기반구조(APII)를 위한 서울 선언문

1995. 5. 30

우리 APEC 통신·정보산업 장관들은 1995년 5월 29-30일 서울에 모여 아·태지역과 세계의 공동번영을 위해 아·태 초고속정보통신기반(APII)을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효과적이고 균형적인 협력을 강화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우리 APEC 통신·정보산업 장관들은,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이룩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자간 무역체제를 강화하고,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와 원활화를 증진하며, 개발협력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APEC 경제지도자들의 합의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통신과 정보를 포함한 기반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보고르 선언을 재확인하였다.

우리 APEC 통신·정보산업 장관들은, 정보통신을 포함한 역내기반구조의 향상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는 자카르타 각료회의 공동선언문의 정신을 인지하고, 모든 APEC 회원경제체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하여 통신 기반구조의 개선에 있어 기술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APEC 저명인사그룹(EPG)의 권고안을 존중한다.

우리 APEC 통신·정보산업 장관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이 전세계 정보통신기반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며, 또한 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APEC 통신·정보산업 장관들은, APEC 전기통신실무그룹회의의 통신분야에서의 협력, 무

역 및 투자의 자유화와 활성화를 위한 지금까지의 공헌과 향후 APII 주도를 통한 이지역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향상을 위한 역할을 강조한다.

우리 APEC 통신·정보산업 장관들은, APEC 회원경제체들간의 경제발전 단계의 다양성에 주목하고, 정보통신기반의 격차가 APEC 회원경제체들의 견실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

우리 APEC 통신·정보산업 장관들은, 모든 회원경제체내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을 위한 목표와 원칙의 개발은 가능한 한 APII의 5대 목표와 10대 핵심원칙과 부합되고 상호보완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우리 APEC 통신·정보산업 장관들은, 기업 및 민간부문의 보다 확대된 주도과 투자가 향후 APII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요소이며, 회원경제체간 정책의 조정과 조화가 경쟁과 시장주도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한다.

우리 APEC 통신·정보산업 장관들은, APII가 역내의 고용창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우리 APEC 통신·정보산업 장관들은, APII의 장기적 목표와 진전을 포함한 실천계획을 시의적절하게 개발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재확인한다.

우리 APEC 통신·정보산업 장관들은 다음과

같은 APII 5개 목표와 APII 추진을 위한 10개 핵심원칙에 합의한다.

• APII의 5대 목표

1. 상호 접속되고 연동 가능한 역내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확충
2. 정보통신 기반구조 발전을 위한 회원경제체 간 기술협력의 장려
3. 자유롭고 효율적인 정보유통의 증진
4. 인적자원의 개발 및 교류의 강화
5. APII의 발전에 적합한 정책 및 규제환경 조성의 장려

• APII의 10대 핵심원칙

1. 회원경제체 각자의 실정에 따른 자체 초고

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의 장려

2. 경쟁주도적 환경의 증진
3. 기업 및 민간부문의 투자와 참여의 장려
4. 신속적인 정책 및 규제체제의 조성
5. 회원경제체간 협력의 강화
6.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정보통신 기반구조 격차의 축소
7. 국내 법률과 규제에 상응한 정보제공자와 이용자에 대한 공중통신망의 공개적이고 비차별적인 접근 보장
8. 공중통신서비스의 보편적 제공 및 접근 보장
9. 문화와 언어적 다양성을 포함한 정보내용의 다양성 증진
10. 지적 재산권, 프라이버시와 데이터의 안전성 보장

APEC 통신·정보산업 장관회의 공동발표문

1995년 5월 29-30일 대한민국 서울

1995년 5월 29일에서 30일까지 제1회 아시아 태평양 경제공동체(APEC) 통신·정보산업 장관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그리고 미국 등 회원경제체의 통신·정보산업 장관들이 참석하였다. APEC 사무총장과 옵저버 자격으로 태평양경제협력공동위원회(PECC) 사무국장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이 회의는 1994년 11월 인도네시아의 보고르에서 열린 APEC 경제지도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안하였으며, 이에 다른 경제체 지도자들이 동의함으로써 개최가 결정되었다.

첫 날 개회식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회의에 참

석한 APEC 통신·정보산업 장관들에게 환영의 뜻을 전하였으며,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도래와 아시아 태평양 경제체들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통신·정보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아·태지역 내 선진국의 경우는 2010년, 개발도상국의 경우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한다는 보고르 APEC 경제지도자회의 합의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아·태 초고속정보통신기반(APII) 구상을 구체화시키고 APII를 구축하기 위해 장관들이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장관회의는 대한민국의 경상현 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였다. 장관들은 APII의 구축과 APEC 경제공동체라는 APEC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토의하였다. 아·태지역에서 정보통

신기반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부응하여, APEC 장관들은 「APII 서울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장관들은 서울선언문이 APII의 구축과 21세기의 고도정보사회의 도래를 앞당기기 위한 장관들의 의지를 담은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서울 선언문은 APII의 다섯 가지 목표와 열가지 기본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선언문은 아·태지역과 세계의 번영을 위하여, APII가 효과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되도록 다각적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장관들은 아·태지역 지도자들이 보고르에서 정한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 통신·정보산업이 “모범(model)” 분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개방적이고 다각적인 무역체제를 강화하고 아·태 지역내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증진하며, 아·태 지역의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장관들은 각 경제체의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하고, APII 및 아시아 태평양 경제 지도자들의 목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1. 기술

- 공동 연구 및 기술이전 등의 기술 협력
- 국제 표준의 설정 추진

2. 통신망

- 정보통신기반의 현대화
- 통신망, 서비스 및 응용을 위한 자국내 시장 및 세계 시장의 개발
- 행정 정보통신망 시범사업
- 공동 시범사업
- 상호접속(interconnectivity) 및 상호연동(interoperability) 증진

3. 내용/정보 및 응용

- 전자데이터거래(EDI)의 장려
- 데이터베이스의 공동개발

- 선도시험망의 상호접속 및 정보공유
- 사회에서 또는 생활속에서 정보사회를 보여줄 수 있는 분야
-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정부의 공공 정보가 보다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도적 사업분야

4. 인력자원 개발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 인력자원 교류

5. 정책 및 규제

- 개발도상경제체와 선진경제체 간의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정책토의
-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제 방안
- 시장 접근에 대한 기술적 및 행정적 장벽 제거
- 중소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

• 실천 계획(Action Plan)

장관들은 실천계획이 1995년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경제지도자 회의에서 논의될 실천계획 의제의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1. 장관들은 아·태지역의 효과적인 협력의 촉진, 자유무역 및 투자, 지속적 성장이라는 목표와 함께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개발을 위한 APII의 10대 원칙에 입각하여 APEC 전기통신실무그룹회의(WGT)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한다.

2. 장관들은 이미 보고르에서 합의된 목표인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무역 및 투자 촉진과 개발 협력, 그리고 장관들이 합의한 원칙들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통신분야의 계획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전기통신실무그룹회의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 우선, 보고르 선언이 지정한 2010/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와 개방화를 성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통신분야에

서의 위임사항들(commitments)의 정의,

- 각 회원경제체들이 정한 목표시점까지의 원활한 진행단계 조정,
- 총체적인 합의 도출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확인

3. 장관들은 APII를 위한 기술평가, 수요예측 및 규제완화 등 APII 추진전략의 효율적인 구축 및 분석을 위한 인력자원의 개발을 전기통신실무그룹회의에 지시한다.

4. 아·태 지역내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관들은:

- 인력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실무그룹회의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들을 승인하고,

- 다음과 같은 적절한 방식을 통해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WGT가 마련토록 촉구한다.

: 정보교환, 인력자원 개발 등의 분야에서 회의 및 세미나 등의 개최,

: 각 회원경제체의 정보통신기반 개발과 관련하여 기업 및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국제금융기관 지원을 증진할 것.

5. 장관들은 APEC 전기통신실무그룹회의가 지금까지 해온 작업을 승인하고 다음 사항들에 대한 작업을 추진하도록 요구한다:

- 국제부가가치통신망서비스(IVANS) 교역을 위한 APEC 지침의 준수,
- 장비 형식승인제도의 조화를 위한 APEC 지침의 준수,
- 지침에 부합된 상호인증 합의의 발전을 위한 체계의 수립 및 이의 준수

6. 장관들은 APEC 전기통신실무그룹회의로 하여금 APEC과 기존의 국제기구 및 프로그램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표준화 및 현재 진행중인 기술협력사업 등의 분야에서 APII를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노력의 중

복을 줄일 수 있도록 요구한다.

그에 따른 협력활동들은 다음과 같은 기구들과 더불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a) 기술 프로젝트들과 관련하여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세계은행(World Bank),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등의 국제금융기관
- (b) APT, ITU, OECD, WTO, 그리고 선도시험망 상호연계, 정보공유, 광대역 시험사업, 의료 및 교육 시험사업 등에서의 협력과 같은 G7의 공동 시범사업
- (c) 전기통신실무그룹회의에서의 정보통신공유 프로젝트

7. 장관들은 APII 시범사업과 협력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APEC 전기통신실무그룹회의에게 지시한다.

장관들은 실천계획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그 진전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2회 APEC 통신·정보산업 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에 합의하였다. 장관들은 호주에서 제2회 APEC 통신·정보산업 장관회의를 개최코자하는 호주의 제안을 환영하였다.